



專業과 轉業사이

#사례 1

“73년부터 78년까지 인쇄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.”

그래서 인쇄업에 계속 투자하셨나요?

“아뇨, 시설확장도 했지만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요”

요즘은 어떠신가요?

“부동산 덕에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인쇄로는 돈 벌기 어려워요.”

2세가 인쇄사에 나와있는 35년 인쇄업을 경영한 한 인쇄인의 말이다.

#사례 2

“공장부지 외에는 땅 한평 사지 않고 오로지 시설현대화와 공장 신축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었습니다.”

그래서 이처럼 탄탄한 기업을 운영하시는군요.

“아닙니다. 인쇄업에 자신감을 잃어 갑니다.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게 되고요, 여건

상 인쇄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거래처에서 오히려 불황을 내세워 협조를 요청해 오고 있는 실정이니 난감할 따름입니다.”

비교적 좋은 거래처에 부가가치가 괜찮은 인쇄물을 생산하고 있는 27년 경력의 인쇄인이 하는 호소이다.

#사례 3

“인쇄업을 그만 둘까 합니다.”

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요, 지금까지 들인 공도 많은데.

“인쇄업이 너무 치열해지고 매력도 잃었어요, 다른

분야에 손 대 보니까 기업활동도 쉽고 돈도 모을 수 있더군요.”

인쇄업계 전면에서 단체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40대 후반 인쇄인의 푸념이다.

위에 든 세가지 사례는 좋고 나쁨이나 맞고 틀리고의 의미는 없다. 다만 인쇄인들의 현주소와 비슷한 공감대로 분류는 될 수 있을 것 같다.

그러나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은 인쇄업을 천직으로 알고 인쇄에 모든 것을 쏟는 ‘專業 인쇄인’이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는 것이다.

대체적으로 볼때 부동산이외의 곳에 투자한 인쇄인 중에는 실패한 경우가 많다. 사실 인쇄업이 이곳저곳(?)에 신경을 써 가면서 경영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갈 수 밖에 없다.

탄탄한 인쇄사와 사명감을 가지고 외 길을 달리던 인쇄인들이 인쇄업이나 전문문제를

놓고 회의감에 젖는다면 한국의 인쇄문화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분명히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.

지난날 우스갯소리로 회자된 말중에 ‘옆집 인쇄사가 망해야 내가 산다’는 험한 표현도 나돌았지만 시장경제 체제에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.

물론 인쇄업체의 난립이나 과도한 인쇄시설의 도입은 인쇄업계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.

이제 곧 꽃도 피고 봄새도 울텐데 인쇄경기도 기지개를 켜고 도약의 창공을 날기를 학수고대 한다. 마음을 가다듬고 인쇄에 ‘올인’ 합시다. <오세익·편집주간>

탄탄한 인쇄사와 사명감을 가지고 외 길을 달리던 인쇄인들이 인쇄업이나 전문문제를 놓고 회의감에 젖는다면 한국의 인쇄문화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분명히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.